2008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에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김기동 두산건설 사장 수상

이종수 사장

김기동 사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08 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개 최하고 152명에 대해 정부 훈•포장 수여식을 가졌다.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59)과 두산건설 김기동 사장(57)이 금탑산업훈장을, 화승토건 백복기 대표와 화인메컨 우광헌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한동건설 신항철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 정희용 청석엔지니어링 대표, 신현각 광혁건설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김서환 대양건설 회장, 임의규 서우토건 대표가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종수 사장은 해외 건설 중동 특수 등을 활용, 단일 기업으로는 최초로 해외 건설 수주 누계 6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30여 년 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기동 사장은 현장 실무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통해 체득한 건설 기술을 확대 발전시킨 공로를 평가받았다.

올해로 61주년을 맞은 건설의 날 행사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신훈 한국주택협회 회장,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동아건설, 이인찬 사장 선임

이인찬 사장

성완종 사장

신동아건설이 이인찬(62) 전 진흥기업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인찬 사장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신성건설 토목 담당 전무, 진흥기업 토목 담당 전무를 거쳐 진흥기업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인찬 대표이사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신동아건설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큰 기쁨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푸르지오 굿 디자인 선정

대우건설이 주택 전시관 '푸르지오 본'을 비롯한 8개 상품이 올 상반기 우수 산업디자인으로 선정돼 GD(Good Design) 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건축디자인 부문에서 주택문화관 '푸르지오 밸리'의 주택 전시관인 '푸르지오 본(本)'과 '푸르지오 류(流)', '서울숲 푸르지오'와 해운대 중동 '팔레드시즈'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선정됐다. 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안산고잔9차 푸르지오 산책광장', '용산 시티파크 새터공원', '청주산남 푸르지오-물 따라 흐르는 이야기'가 뽑혔다. 또 주택설비용품류 부문에서는 '빌트인 와인 냉장고'가 우수 산업 디자인으로 선정됐다. 특히 푸르지오 본(本), 안산고잔9차 푸르지오 산책광장, 빌트인 와인 냉장고 등 3개 상품은 올 하반기 수상 예정인 본상 수상 후보에도 올랐다.

GD 마크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 인증 제도로 기능과 품질, 사용의 편리성, 소재의 안전성 등을 국제 디자인 전문가가 엄격히 심사해 우수한 디자인 상품을 인증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디자인 인증 제도다.

쌍용건설, 쌍용 藝家 아티스트 공모전

쌍용건설(대표이사 김병호)이 지난달 26일까지 예가 아파트 단지에 적용할 각종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제1회 쌍용 예가 아티스트 공모전'을 실시했다. 참가 대상은 예술 작가와 미술, 디자인 관련 전공자(학부 졸업 이상) 등의 전문가들이다.

응모 내용은 쌍용 예가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측벽, 필로티 내부 공간, 단지 옹벽, 어린이 놀이시설, 조경 시설, 단지 출입구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 설치 미술 등의 예술적인 작품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1명 1000만 원, 최우수상 2명 각 300만 원, 우수상 3명 각 1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특히 대상 수상자는 개인 작품전 개최와 쌍용 예가 대표 작가로 1년간 활동할 수 있는 특전 등이 주어진다.

쌍용건설 홍종우 기술부문 담당 상무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예술 작가와 미술 및 디자인 전공자들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공모전을 준비했다"며 "수상 작품을 실제 단지에 활용해 작가의 이름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기업,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경남기업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이사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전국 9개 지역에서 고교생과 대학생 675명에게 장학금 4억 5000만 원을 전달한다. 성완종 이사장은 "선진국에서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기부 문화가 자리 잡았다"며 "국내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산업, 사랑의 집짓기 봉사 활동

화성산업(대표이사 이홍중) 화성자원봉사단이 6월 22일, 해비타트 대구경북지회에서 실시한 칠곡 사랑마을 신축 공사 현장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30여 명의 봉사단이 모여 우의 착용 후 현장 잡자재 정리 및 가설 자재 보수 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전국 각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8년도 신입 사원(12명)이 참가해 기업 내 봉사 단체 활동에 참여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화성자원봉사단은 지난해에도 사랑의 집짓기 봉사에 참여했다.